독립군 지도자 김경천 장군

이 동 언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

김경천(金擎天, 1888. 6. 5 1942. 1. 2)은 만주와 노령에서 독립군 지도자로 활약한 인물이다. 1888년 6월 5일 서울에서 부친 김정우(金鼎禹)와 어머니 윤옥련(尹玉蓮) 사이에서 5남 1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본적은 서울 사직동 166번지이고, 어릴적 이름은 ‘현충(顯忠)이다. 본관은 김해(金海), 본명은 ‘광서(光瑞)'이고, ‘경천(警天, 敬天), 응천(應天)'으로도 불리웠다. 김경천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한 무관 집안이었다. 부친 김정우는 일본에 유학한 군기(軍器)전문가로 구한국 육군 최고위층 인사였다.

김경천은 부친의 영향을 받아 군인이 되고자 하였고, 어려서부터 나폴레옹을 흠모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1909년 12월 유일한 한국인 관비유학생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23기생으로 입학하여 1911년에 졸업하였다. 김경천은 1909년 일본으로 유학가기 1주일 전날 유정화와 결혼하였는데 유정화는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유계준(柳桂俊)의 딸로 부유한 집안이었다. 김경천은 일본으로 떠나기 전 그의 부인에게 피아노를 사주고, 배우게 하였다고 한다. 그 후 김경천은 부인을 일본으로 불러 일본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천엽현(千葉縣)에서 그의 두딸 지리(知利)와 지혜(知慧)를 낳았다. 김경천은 부인과의 사이에 2남 4녀를 두었다. 김경천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동경 제1사단 기병 제1연대에서 근무하였다. 1916년 12월 일본 육사 제26, 27기생 가운데 홍사익(洪思翊), 이응준(李應俊) 등 동경 제1사단에 근무하던 한국인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 ‘전의회(全誼會)'라는 친목단체를 조직하였는데 김경천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김경천이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1919년 동경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독립선언이 있자, 이를 계기로 국권회복을 위해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였다. 김경천은 병을 칭하여 휴가를 얻어 귀국하였는데 육사 3년 후배인 이청천과 이응준도 귀국하였다. 이들은 사직동 김경천의 집에 모여 상의한 결과 국외로 탈출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만주로 망명하기로 결심한 김경천은 일제감시를 피하기 위해 낮에는 당구를 치고 밤에는 술집을 드나들며 일본 헌병대의 눈을 속이기도 하였다. 그는 마침내 1919년 6월 6일 이청천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였다.

김경천과 이청천의 만주로의 망명은 3·1운동 이후 수많은 한인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군 현역 장교의 망명은 일본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

◀ 김경천
▲ 신흥무관학교 분교 소재지(중국 길림성 유하현 고산자)

다. 그리하여 일본군은 현상금 5만 엔을 내걸고 이들의 체포에 혈안이 되었다.

만주로 망명한 김경천은 신의주 맞은편 안동현(安東縣)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대한독립청년단(大韓獨立靑年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19년 8월 대한독립청년단 단원들과 함께 대한독립청년단 총재 안병찬(安秉瓚) 외 28명의 연서로 '중화민국 관상보(官商報) 학계 제군에게 고함'이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 성명에서 김경천은 한중연합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민족의 요구가 국제연맹 회의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한중공수동맹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한독립청년단 총재 안병찬이 체포되자 대한독립청년단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이에 김경천은 보다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서간도 유하현(柳河縣)에 있는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찾아가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김경천은 신흥무관학교에서 이청천과 함께 독립군을 양성하며 기회를 엿보기로 하였다. 신흥무관학교에는 구한국군관학교 출신인 신팔균(申八均)도 교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들은 조국 광복을 위해 투쟁을 맹세하고 다같이 '천(天)' 자(字)가 붙은 별호를 지었는데 '**경천(擎天)** **김광서(金光瑞)**·**청천(靑天)** **지석규(池錫奎;이청천)**·**동천(東天)** **신팔균(申八均)**'으로, 이들은 '**남만주 3천**'으로 불렸으며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이때 장길상(張吉相)이 배천택(裵天澤)을 통해 거금 5만원을 군자금으로 보내와 계획을 추진하였다. 1920년 3월 1일을 기하여 그들은 국경지대인 자성·후창·혜산진 중에서 한곳을 점령하여 국내에서 3·1운동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신팔균은 남만주 한인사회의 지원을, 이청천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김경천은 노령지역으로 무기구입을 위해 각각 이동하였다.

노령지역으로 이동하던 김경천은 중간 기착지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북간도를 택하고 단신으로 동지들을 규합하고자 하였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그곳도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으로 인하여 일본군의 감시와 조선인 체포로 인하여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산림지대인 수청지역으로 이동하여 산림 속으로 일단 피신하였다. 그런데 당시 수청지역도 일본의 조정을 받는 중국계 마적들이 수시로 출몰하여 한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에 곤궁에 처해있는 재러 동포들을 구하기 위하

露領見聞記(六)

公民

八、醫天金將軍

九、鐵西亞人의

特性

▲ 김경천 관련 보도기사(동아일보 1922.1.24 1면)
▲ 연해주 한인 빨치산부대 간부(1922)
▶ 고려혁명군 관계서류

여 의용군을 모집, 마적 소탕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김경천은 수청지역 **창해청년단(滄海青年團) 총사령관**으로 활동하면서 마적소탕에 전력을 기울였다. 결국 1920년 수청지역에서의 마적 소탕활동으로 시베리아지역에서 명성을 크게 얻어 '김장군(金將軍)'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21년 봄 김경천은 수청 인근의 올가에서 조직된 통합 빨치산부대의 책임자가 되어 러시아 백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고, 다우지미의 **수청고려의병대 사령관**으로 러시아 백군과 싸우며 마적 소탕에 전력을 기울였다. 1921년 말 이만으로 이동한 수청고려의병대는 다음해 1월 김경천의 지휘아래 러시아 적군과 함께 백군의 근거지였던 이만을 점령하였다. 연승을 거둔 김경천은 1922년 7월 연해주 혁명군사위원회로부터 뽀시에트 군사구역 조선 빨치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러시아와 중국 국경지방 무장단체들로 조직된 **고려혁명군 동부사령관**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1922년 말 일본군이 철수한 뒤 러시아 적군이 동맹군이었던 한국독립군에 대해 무장해제를 요구하자 김경천은 1923년 2월 상해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창조파 일원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에 실망하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다시 돌아와 구로지코 부근에 무관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또한 김경천은 1924년 3월 한족군인구락부를 조직하고 본부를 블라디보스톡에, 그리고 지부를 니콜리스크에 두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도 러시아당국의 한인정책과 노령 출신 2세들과의 갈등으로 점점 쇠퇴하고 말았다. 1926년에는 윤해(尹海)·김규식(金奎植) 등과 함께 민족당주비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 후 김경천은 1930년대 전반기까지 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한족군인구락부 조직을 통해 산산이 흩어진 항일역량을 다시 규합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만년에는 블라디보스톡 고려사범대학에서 군사학과 일본어를 가르쳤다. 김경천은 1937년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를 앞두고 '간첩죄'로 체포되어 온갖 고초를 겪은 끝에 1942년 1월 소련의 북동쪽 꼬미자치소비에트공화국의 유배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천은 스탈린 사후인 1959년 2월 19일 복권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8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